

2025 Vol. 30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및 충남도 혁신 전략

16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강원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의

23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4. 글로벌/광역협력

74

04

R&D 성공사례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78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및 충청도 혁신 전략
충남연구원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및 충남도 혁신 전략

충남연구원

1. 서론

■ 배경

- 충청남도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9.4%, 국내 시장의 58.1%를 차지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
 -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전후방 중소기업 378개가 집적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
 - 하지만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LCD에서 OLED로의 전환 가속화
 - 중국 기업의 공격적 투자와 *OLED 시장 진입
- *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이 2014년 1% 미만에서 현재 50%를 넘어서며, 기술 격차는 1년 남짓으로 좁혀짐

■ 필요성

- 기술 초격차 유지
 - LCD는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넘긴 상황에서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마이크로 LED, 플렉서블 등) 기술 우위 확보가 시급
- 소부장 자립도 강화
 -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이 2019년 65%에서 2023년 71.5%로 상승했으나, 핵심 장비와 소재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디스플레이 전문학과 정원이 반도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
- 생태계 협력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소 간 유기적 협력 구조 미흡

2. 글로벌 및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분석

■ 글로벌 시장 동향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1,351억 달러에서 2029년 1,51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OLED는 2024년 540억 달러(40%)에서 2029년 682억 달러(45%)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IT용 OLED(노트북, 태블릿)는 2024년 전년 대비 155%, 241% 성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금액기준)>

(단위:억\$)

디바이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LCD	전체	795	815	824	811	811	780
	비중	58.9%	58.5%	57.1%	54.7%	53.6%	51.4%
	대형	705	735	752	744	749	722
	비중	88.7%	90.2%	91.2%	91.8%	92.3%	92.5%
	중소형	90	80	72	67	62	58
	비중	11.3%	9.8%	8.8%	8.2%	7.7%	7.5%
AMOLED	전체	540	564	593	635	658	682
	비중	40.0%	40.5%	41.1%	42.9%	43.5%	45.0%
	대형	98	101	125	157	175	200
	비중	18.1%	18.0%	21.1%	24.7%	26.6%	29.3%
	중소형	442	462	468	478	483	482
	비중	81.9%	82.0%	78.9%	75.3%	73.4%	70.7%
Other		16	19	28	35	42	53
비중		1.1%	1.0%	1.8%	2.4%	2.9%	3.6%
총합계		1,351	1,394	1,444	1,482	1,514	1,517

*출처: KDIA

- Micro LED는 2024년 2,790만 달러에서 2029년 7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93% 성장에 예상되며, XR(AR/V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신시장 창출의 핵심 기술로 부상

<차세대 기술 경쟁 동향(OLED vs MicroLED)>

기술	주요 특징 및 장점	도전 과제 및 제약 사항	주요 응용 분야 및 개발 동향
OLED	우수한 색 재현성, 자체 발광, 유연성 등	MicroLED 대비 1,000 cd/m ² 미만의 밝기 한계, OLEDoS의 습기 침투 캡슐화 과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유럽 자동차 OEM), 미러리스 카메라용 EVF(일본 및 한국)
MicroLED	초고해상도/선명도, 긴 수명, 낮은 에너지 소비, 뛰어난 색상 성능, 빠른 응답속도	높은 제조 비용, 크기 및 유연한 적용 한계, 열 방출 문제, 정밀한 구동 및 제어 기술	TV 상용화 추진(LG전자), 사이니지 디스플레이(BOE),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AUO) 등 신시장 개척

○ **중국은 LCD 시장 점유율 72%, OLED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며, 2020~2027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자본지출의 평균 85%를 투자할 계획**

- 중국 정부는 BOE 등 핵심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2010~2021년 약 39억 달러) LCD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OLED 투자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이에 따라, 2028년 8.6세대 IT용 OLED 생산능력의 64%를 중국이 차지할 전망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금액기준)>

(단위:억\$)

국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Q)
중국	36.7	41.3	42.5	48.1	50.8	54.1
한국	36.8	33.3	36.9	33.2	33.1	30.6
대만	22.5	23.1	18.2	16.7	14.6	13.9
일본	3.5	1.9	2.1	1.7	1.1	0.9
기타	0.5	0.4	0.3	0.3	0.4	0.5

*출처: OMIDA, KDIA

■ 국내 산업 동향

-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2010년 89조 원 정점 이후 2022년 54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수출도 2012년 369억 달러에서 2024년 187억 달러로 급감

<디스플레이 수출 동향>

(단위:백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Q)
전체	17,983	21,385	21,149	18,587	18,747	7,608
LCD	7,076	6,858	5,844	4,471	4,815	1,934
비중	39.4%	32.1%	27.6%	24.0%	25.7%	25.4%
OLED	10,906	14,527	15,302	14,104	13,902	5,662
비중	60.6%	67.9%	72.4%	75.9%	74.1%	74.4%
기타	-	-	3	12	30	7
비중	-	-	0.0%	0.1%	0.2%	0.2%

*출처: OMIDA, KDIA

-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치사슬 전 분야를 구축한 유일한 국가임에도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 측면에서 매우 취약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LCD, PDP, OLED 3대 패널에 들어가는 53개 핵심 부품·소재 가운데 20개 품목의 국산화율이 25%에 채 미치지 못함
 - 2020년 기준 한국은 수입의 76%,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OLED) 2024년 상반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187억 불을 기록했으며, 이 중 OLED는 13.7% 증가한 147억 불, LCD는 17.8% 증가한 약 40억 불로 나타남

<기술 구분에 따른 디스플레이 매출 현황>

(단위:백만\$,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YoY)
OLED	14,236	21,494	14,644	19,559	12,958	18,520	14,734	13.7 ↑
LCD	8,723	7,558	5,827	4,947	3,386	4,105	3,987	17.7 ↑
전체	22,959	29,052	20,471	24,506	16,344	22,625	18,721	14.5 ↑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IDA

- 국내기업의 OLED 매출액이 147억 불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는 TV·IT 품목의 매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임
- 다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5억 불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글로벌 M/S 증가 속 국산화로 국내 패널기업의 중국 스마트폰 공급 비중이 감소한 것이 원인

<OLED 품목별 상반기 디스플레이 실적 현황>

(단위:백만\$,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YoY)	
스마트폰	11,138	17,030	11,240	15,077	10,183	14,844	9,951	2.3 ↓	
TV	2,222	2,612	1,962	2,329	1,427	1,892	1,714	20.1 ↑	
IT	테블릿	68	70	145	38	90	152	1,452	1513 ↑
	노트북	269	375	371	339	241	220	380	57.7 ↑
	모니터	-	4	23	45	118	304	343	190.6 ↑
	총계	337	449	539	422	449	676	2,175	384.4 ↑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IDA

- (LCD) 국내기업의 LCD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약 40억 불로 대면적화·프리미엄 수요 증가, 대형 분야 패널 단가 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음

<LCD 품목별 상반기 디스플레이 실적 현황>

(단위:백만\$,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YoY)	
TV	3,198	1,641	1,109	1,033	410	461	686	67.3 ↑	
IT	테블릿	658	655	384	807	519	625	578	11.4 ↑
	노트북	1,355	1,580	1,122	1,131	832	875	842	1.2 ↑
	모니터	1,813	2,010	1,711	853	785	1,094	1,027	30.8 ↑
	총계	3,826	4,245	3,217	2,791	2,136	2,594	2,447	14.6 ↑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IDA

-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는 LCD 수출은 증가한 반면 OLED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장비 수출 상위 품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OLED용 증착기(PVD)가 가장 높은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LCD용 증착기 및 식각기가 그 뒤를 이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출 상위 3개 품목 수출 현황>

(단위:천\$, %)

품명	2022		2023		2024	
	9월 누계액	전체	9월 누계액	전체	9월 누계액	YoY
(OLED)PVD	3,198	1,641	1,109	1,033	410	461 ↑
(LCD)PVD	74,912	74,912	50,960	104,278	63,591	24.8 ↑
(LCD)식각기	127,005	141,104	18,083	47,326	48,533	168.4 ↑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KITA

3.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강점 및 인프라

■ 산업 집적 및 특화단지 지정

- 충남은 2015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로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액의 53% 이상,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24% 이상을 차지
- 천안·아산 지역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주요 생산시설, 378개 협력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27년까지 총 3,258억 원 투입 예정
- 특화단지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10개 산업단지를 연계하며,
 - ①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② 인력양성 ③ 테스트베드 지원 ④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⑤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 제공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 1,598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된 국내 최초의 디스플레이 전주기 실증 플랫폼인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2025년 4월 개소
 -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3,320㎡ 규모로 OLED 공정 장비 31대, 시험평가 장비 25대, 케미컬 장비 9대 등 총 65대(63종)의 첨단 장비 보유
 - 패널 설계, 혁신 공정, 모듈 공정, 플렉서블 공정, 검사·계측 등 제품 양산 수준의 풀 공정 라인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 수행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 디스플레이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제품 혁신성장을 위하여 패널기업과 연계 가능한 2세대 OLED 공정장비 및 시험·분석장비 63종 65대 구축
- OLED 일괄공정 및 혁신공정장비와 전문운영인력 보유
LTPS TFT, Oxide TFT, OLED 제조공정, 플렉시블 공정 등 핵심기술개발
- OLED 디스플레이 특성평가 및 신뢰성 검증 시스템
구조분석, 소재·부품의 물성분석, 광특성, 신뢰성시험을 통한 시험·인증 지원

실적 (최근 5년)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8건
기술지원사업 수행실적	10건
성능개선및사업화지원실적	91건

2세대 OLED Fab 보유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인프라 보유

패널기업과 연계 가능한 공정 R&D라인

OLED 패널 공정서비스



OLED 패널 제작 공정 구축

OLED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시험·분석·인증 평가



시험·분석·인증 평가

OLED 패널 특성 평가 및 신뢰성 시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소개]



사업 현황		기대 효과
혁신공정센터 건립 (1598억원)	OLED 클린룸 구축 60여종 장비 도입 기업 지원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 격차 5년, 기술 격차 3년 이상 확보. 시장 점유율 70% 유지
R&D (3683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혁신과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66개 과제 수행	-충남도 내 248개 디스플레이 기업 포함 국내 1060개 기업 성장 지원 -고용 7567명, 생산 1조547억원 등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기대효과]

■ 인력 양성 인프라

-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11개로 인력 공급과 산학협력에 유리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025년 3월 민간 주도의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출범해 향후 5년간 3,9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석·박사 대상 고성능·가변형 OLED 신기술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

4.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 및 주요 과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체계 미흡

-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
- 장기 연구개발에는 20~30여 년이 소요되나, 위탁 경영자 체제하에서는 단기 성과 압박으로 장기 연구가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

■ 소부장 공급망 안정성 확보

- OLED 소부장 국산화율은 2019년 65% 대비 2023년에 71.5%*로 상승했으나, 핵심 장비(노광기, 이온 주입기, OLED 증착기 등)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보도자료, 2023.11.24., "K-디스플레이, 불안정한 미래 속에 소부장 국산화율 초유의 70% 이상 달성"

■ 인력 수급 불균형

- 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 인력 부족 인원은 937명*으로, 특히 연구개발 인력이 33.3%를 차지하는 R&D 집약적 산업임에도 대학·대학원의 전문학과 정원은 반도체의 10분의 1 수준

*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 2024.7.16., “반도체 10분의 1 수준...인력난 허덕이는 K-디스플레이”

- LCD에서 OLED로의 인력 재편은 마무리되었으나, Micro LED, XR, 차량용 등 신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

■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연계 부족

-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기업이 기술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소부장을 개발하며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미흡
- 중소기업은 수요기업의 로드맵과 기술 니즈 파악이 어려워 맞춤형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5. 충남형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 소부장 혁신 생태계 구축

-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기반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앵커 대기업-협력기업-산학연이 집적한 밸류체인 완결형 단지 구축
- 상생펀드 조성,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이전 등 대기업의 체계적 상생프로그램 강화
-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 모듈러 센터(아산) 연계로 OLED-iLED 협업 인프라 확대

- 핵심 소부장 국산화 R&D 집중 지원

- 폴리이미드 등 해외 독점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책 R&D 확대
- 단독 장비 개발 시 핵심부품 공동개발(장비-부품 동시 개발) 모델 도입
- 패턴웨이퍼 지원 품목 확대, 양산 성능평가 지원사업 확대로 개발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차세대 기술 선도형 R&D 강화

○ OLED 기술 초격차 확보

- 초저원가 구현을 위한 공정 방식 혁신 및 혁신 소재·공정 기술 개발
- LTPO-TFT 적용 확대,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OLED 기술 집중 개발
- 차량용, IT용(노트북, 태블릿) OLED 신시장 창출 기술 개발

○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

- 마이크로 LED 대량이동 기술, 픽앤플레이스 전사 기술 등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 XR(AR/VR), 차량용,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 응용 기술 개발
- 아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센터와 연계한 iLED-OLED 융합 기술 개발

○ AI·메타버스 등 신산업 융합 전략

- AI 시대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로 온디바이스 AI 수요 대응
- DT·XR 결합 산업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응용 기술 개발
- 충남형 AI 산업과 디스플레이 융합 R&D 프로그램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착 지원

○ 산업계 주도 실전형 인력양성 체계 확립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아카데미를 통한 연간 780명 전문 인력 양성(5년간 3,900명)
- 디스플레이 전용 교육장 및 XR 활용 교육 시스템 구축
- 혁신공정센터 활용 대학 학부생 실습, 석박사 연계 과정, 기업 신인 인력 교육 운영

○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 고성능·가변형 OLED 신기술 트렌드 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소부장 애로 기술 해소 및 현업 적응기간 단축
- 정부사업 검증 전문인력과 기업 간 1:1 매칭 비용 지원

○ 충남 라이즈 사업 연계 AI 디스플레이 인재 양성

- 교육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AI·디스플레이 융합 인재 양성
- 지역 대학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 석박사 과정 지원 확대
- 청년 창업가 디스플레이 분야 지원 확대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충남 디스플레이 혁신 협의체 구축

- 충남도-충남TP-대학-연구소-협회 등 9개 기관 추진단 정례화
- 대기업-중소기업-대학 간 기술·정보·인력 교류 플랫폼 운영
-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 중심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발전 프로그램 강화

○ 수요기업 참여형 Top-Down R&D 기획

- 삼성디스플레이 등 수요기업 로드맵과 연동한 장비·소재 공동 기획
- 수요기업의 국책 R&D 사업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당해연도 국산 소부장 구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공급망 다각화 촉진

○ 지역혁신 거점기관 역할 강화

-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소부장 등 지역산업 육성 총괄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정책기획·R&D 과제 발굴 기능 강화
- 지역산업·기업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

■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 충남형 디스플레이 정책 패키지 구축

- 충남 AI 조례 제정에 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조례 제정
- 중부권 데이터센터, 제조 AI 집적 클러스터 등 AI·디스플레이 융합 인프라 구축
- 디스플레이 기업 대상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 중장기 투자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 5~10년 장기 관점의 안정적 정부 R&D 투자 지원
- 지역산업·기업 모니터링 강화로 여건 변화 선제 대응
-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지속 점검

○ 국가 단위 정책 연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소부장 지원 정책과 연계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혜택(R&D 예산 우선 반영, 인허가 신속처리 등) 최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책과제와 충남 R&D 시너지 창출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강원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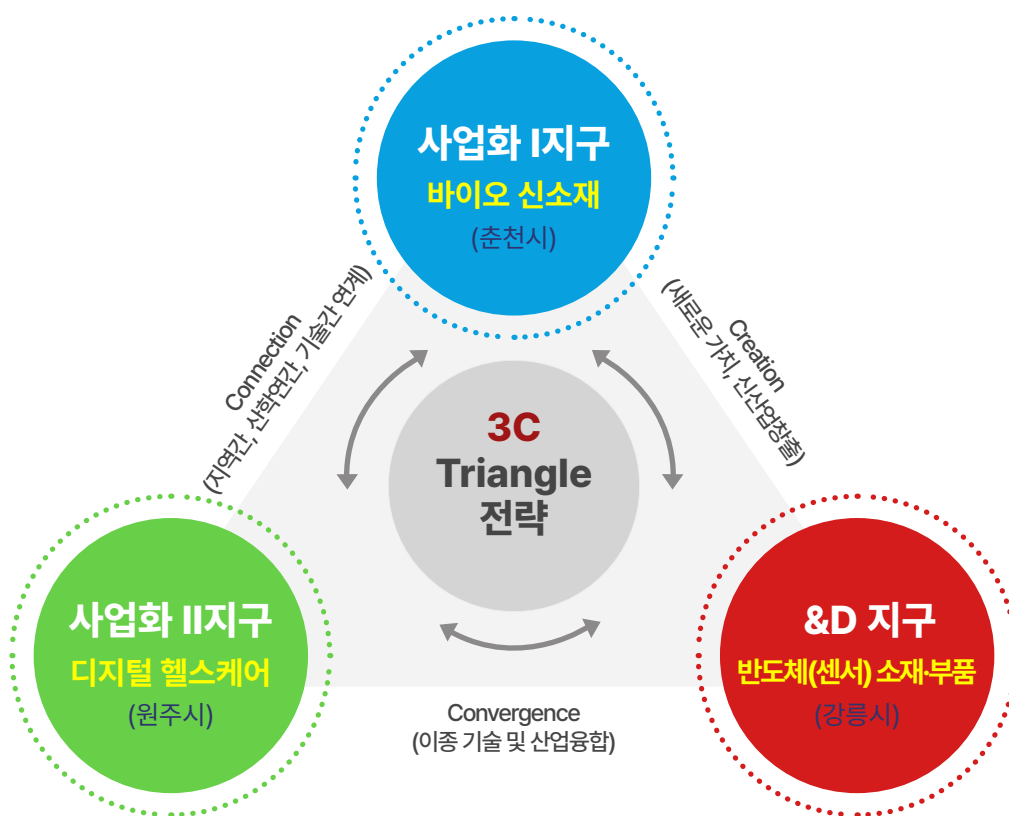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의

강원연구개발지원단

1. 서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중 '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다리를 놓는 제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형 연구개발특구는 기존 광역형 연구개발특구(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북)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공간적으로는 춘천·원주·강릉 세 도시를 잇고(총 11.7km²: 사업화 3.36km², 사업화II 5.52km², R&D 2.85km²), 기능적으로는 연구개발(R&D) → 사업화 → 확산의 전주기 과정을 '3C Triangle(연결·융합·창출, Connection·Convergence·Creation)'로 설계하였다.



[3C Triangle 전략]

핵심 육성 분야는 ① 바이오 신소재, ② 디지털 헬스케어, ③ 반도체·센서 소재·부품 세 축이다. 이 가운데 강릉은 출연연 분원을 중심으로 원천·응용 연구의 거점(R&D 지구), 춘천과 원주는 치료제·바이오제품과 고감도 센서·소재부품의 사업화 거점(사업화·II 지구)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세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고 융합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창출한다는 것이 '3C Triangle' 구상이다.

2. 특구 지정의 의의

2-1. 법·제도적 의의: '가능성의 문'을 연 특례

강원연구개발특구 추진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정량·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공계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국립·정부출연연 3개 이상 포함) 등 기존 요건으로는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만족이 불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2조의 특례를 적용받아 '국립·출연연 3개 이상' 요건을 '2개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 지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강원권은 특구예정 지역 내 과학기술 연구기관 184개(출연연 분원 2, 기업부설연구소 164 포함), 이공계 대학 7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정량·정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충족한다. 제도적 문턱의 완화와 기 구축된 연구기관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법적 가능성 → 실행력'의 사다리가 놓였다.

<강원 연구개발특구 출연연 포함 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현황 >

요건	주요 현황
① 정부출연(분원포함) 연구기관 2개 이상 포함 연구기관 40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연구소(분원) 2개소 (KIST, 생기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182개소 지역혁신기관 17, 지자체출연연구소 1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 기업부설연구소 164 (춘천 42, 원주 65, 강릉 57)
② 이공계 학부를 둔 학사 이상 교육기관 3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공계 석·박사 과정 운영 교육 기관 7개소 - (춘천)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원주)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릉원주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2-2. 공간·산업 전략의 의의: '3C Triangle'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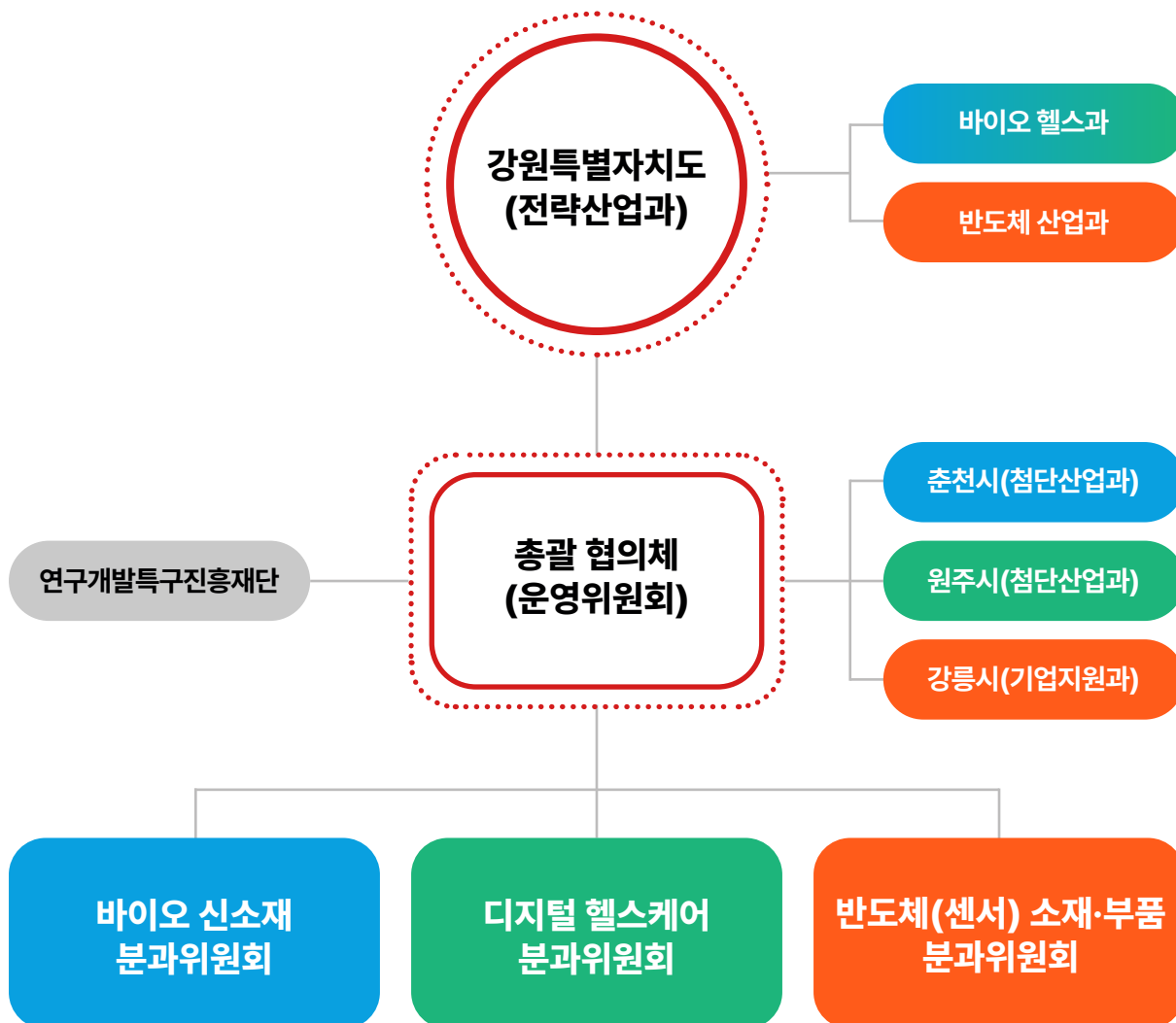
[지역간 특화분야 육성 전략]

강릉(R&D)-춘천·원주(사업화)의 분업은 단순한 지역 배치가 아니라 가치사슬의 재구성이다. 예컨대 강릉에서 천연물·세라믹 기반 신소재를 탐색·개발하면, 춘천에서는 이를 활용해 바이오제품·치료제를, 원주에서는 반도체·센서·소재부품을 고도화해 수요 산업에 적용한다. 사업화 지구 간에는 항체·디지털 의료기기를 매개로 기술 융합을 추진하고, 다시 R&D 지구로 환류시켜 고부가 신제품을 창출한다. 연구개발 → 사업화 → 재도전의 선순환이 '연결·융합·창출'로 구체화되는 배치이다.

2-3. 경제·사회적 의의: 가시적 수치로 확인되는 파급력 기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시 2026~2040년 단계별 투자(총 1조 2,480억 원)를 전제로 하여 연구개발투입 산출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생산유발 2조 1,903억 원, 부가가치유발 9,135억 원, 고용유발 7,680명이 예상된다. 이는 지역 내 연구개발 혁신 활동이 연쇄적으로 주변 산업을 견인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예정 지역내 입주 기업의 누적 성과목표도 도전적이다. 2040년 기준 매출 27조 4,253억 원, 고용 49,280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매출 +22.0조, 고용 +34.3천 명 수준의 퀀텀 점프이며, 특구가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혁신경제 기반'으로 기능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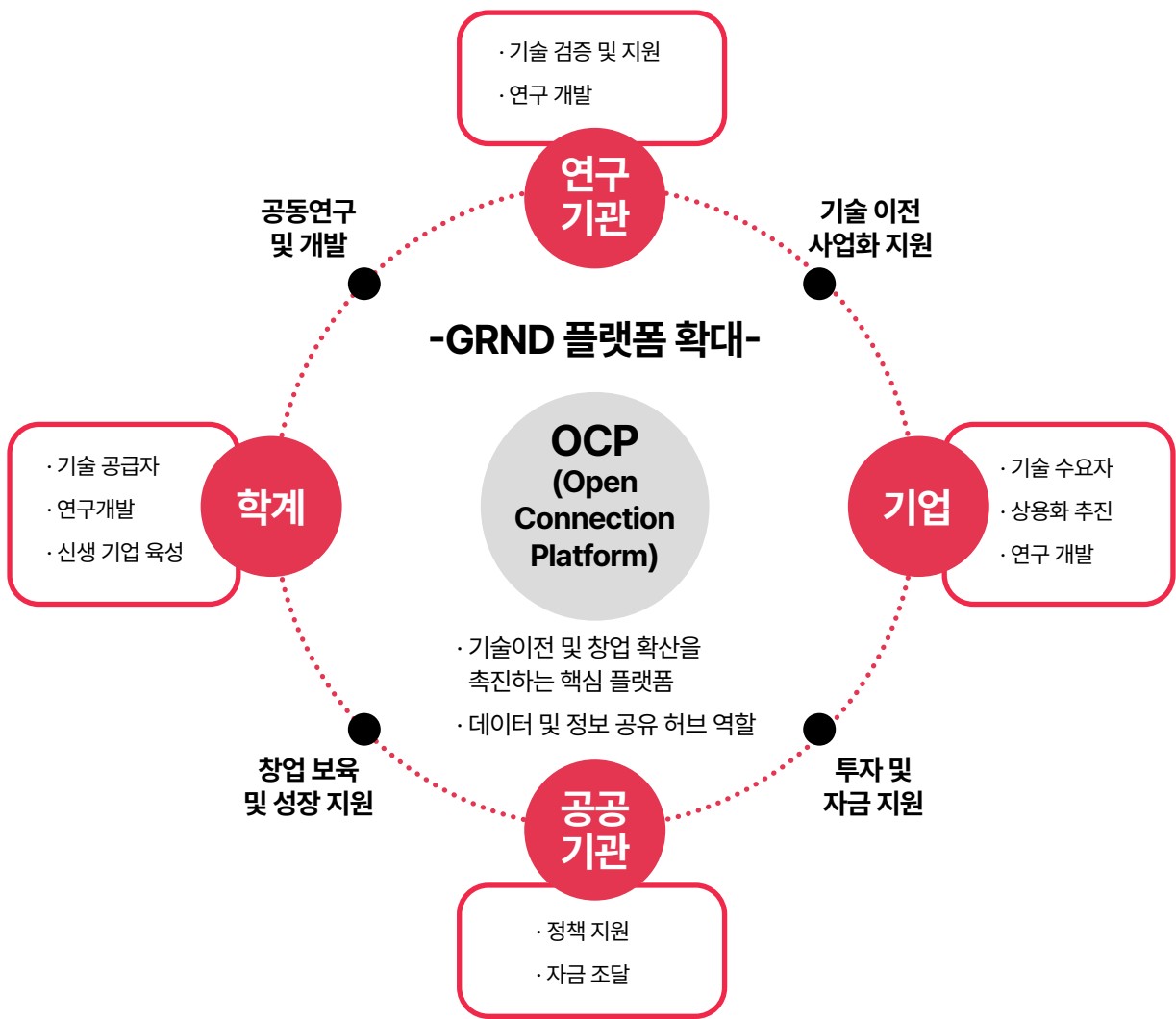
2-4. 거버넌스의 의의: 광역내 협치로 '실행'에 중점



[강원형 연구개발특구 운영 체계]

강원자치도내 춘천-원주-강릉 넓은 공간 범위의 세 도시가 얹히는 국내 최초 광역형 특구의 성패는 거버넌스의 협치에 달려 있다. 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3개 시·특구재단·대학·혁신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15명)'와 분야별 '분과위원회(3개, 각 10명)'로 이뤄진 다층 구조를 제시한다. 정기 회의와 수시 워킹그룹으로 과제 기획·조정, 제도개선, 예산지원 검토, 수요발굴·매칭 등의 운영 기능을 명확히 했다. '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질 경로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실천적 의미다.

2-5. 디지털 플랫폼의 의미: 거리의 장벽을 낮추는 '온라인 플랫폼'



[GRND 플랫폼 확대 계획]

강원연구개발정보서비스(GRND, Gangwon R&D Information Service)를 기술사업화 네트워킹·협력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구상도 눈에 띈다. 특히, 노하우, 장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매칭 → 오프라인 확정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 R&D를 촉진하고, 성과 → 기획 → 실증 → 투자(IR)까지 연계한다. 광역 특구의 물리적 거리 문제를 디지털로 상쇄하는 인프라다.

3. 특구 육성 전략

3-1. 비전과 단계별 육성 전략

비전은 "의료·생명 중심의 글로벌 신소재 융합 클러스터"다. 단계별로는 ① (~2030) 3개 지구에서 특화기술 창출과 제품개발·실증 강화, ② (~2035) 도내 인접지역·타권역으로 확산·연계, ③ (~2040) 수도권 등 외부 연계를 강화하며 특구 중심의 혁신경제 기반을 확립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매출(5.4조→9.6조→16.3조→27.4조)과 고용(1.5만→2.28만→3.35만→4.93만)의 단계적 목표가 제시돼 실행관리의 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다.

3-2. 3C Triangle의 실행

- 연결(Connection) : 강릉 R&D 지구의 천연물·세라믹·반도체 소재 원천·응용 기술을 춘천·원주 사업화 지구로 연결, 기술 주체와 지역 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 융합(Convergence) : 사업화Ⅰ↔Ⅱ 간 항체·디지털의료기기 등 융합으로 신제품·신서비스를 창출, 가치사슬을 형성
- 창출(Creation) : 사업화 성과를 다시 R&D로 환류, 고부가 신기술·신제품을 재창출하며 선순환을 완성

3-3. 지구별 기능과 공간 설계

- 사업화(춘천): 바이오제품·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사업화 거점(3,361,905㎡)
 - 사업화Ⅱ(원주): 디지털 의료기기 및 반도체·센서·소재부품의 사업화 거점(5,504,119㎡)
 - R&D(강릉): 천연물·반도체·센서 소재의 연구개발 거점(2,834,813㎡)
- 세 지구 합계 11.7km²의 배치가 가치사슬의 실질적 분업과 협업을 뒷받침한다.

3-4. 기술이전, 창업, 투자와 파급효과

기술이전은 2040년까지 누적 4,993건, 연구소기업은 누적 700개 설립을 목표로 한다. 2022~2024년 춘천 강소 특구의 실적, 타 특구의 성장률 등을 근거로 산정되어 현실성이 확보되어 있다. 재정·민간투자를 합한 2026~2040년 총투입 1조 2,480억 원(1단계 3,328억 → 2단계 4,160억 → 3단계 4,992억)을 전제로, 생산유발 2조 1,903억·부가가치유발 9,135억·고용유발 7,680명으로 추정했다. 재정과 민간(AC/VC·글로벌 펀드 등)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자금 미스매치를 줄이는 설계다.

3-5. 거버넌스, 플랫폼, 정책 도구

총괄협의체(15명)와 분과위원회(3개, 각 10명)를 중심으로 과제 기획·조정, 제도 개선, 수요 발굴·매칭, 성과 확산 전략을 정례화한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더해 특허, 장비, 인력의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IR데이 등 프로그램을 상시화한다. 지역(지자체 재정), 기업(수요 기반 R&D, 테스트베드, 투자연계), 지역사회(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와의 협력장치도 병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3-6. 기반역량: 기 구축된 연구인력, 기관, 대학의 힘

특구권역은 과학기술 연구기관 184개(이 중 출연연 분원 2, 기업부설연구소 164)와 이공계 대학 7개를 이미 갖췄다. 특히,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기획 → 개발 → 사업화' 전주기에 필요한 두터운 인적 및 지식 자본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강원형 연구개발특구가 빠르게 '초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근본 엔진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강원연구개발특구의 가치는 세 가지이다.

- 첫째, 제도: 강원특별법 특례로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 없이 '현실적 요건'을 갖춘 점
- 둘째, 공간·산업 전략: R&D → 사업화 → 환류를 도시별로 분업·연결하는 3C Triangle로 가치사슬을 재설계한 점
- 셋째, 거버넌스·플랫폼: 광역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계획 → 집행 → 성과'의 사슬을 끊임없이 잇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 자율성 강화와 일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구역량, 기술 수준 격차)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의 시너지 창출을 보여줄 수 있음을 말한다. 더불어 '인간 중심 혁신,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의 정립은, 강원을 기술과 삶의 질이 공진화하는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할 문화적 내러티브다.

물론 성공의 조건도 분명하다. 첫째, 일관된 우선 순위별 투자 및 지표 관리다. 단계, 분야, 지역별 KPI를 단순·명확하게 통일해 예산 배분과 평가를 연동해야 한다. 둘째, 도시 간 비용 최소화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매칭 및 원격 협업을 상시화해 '세 도시 간 거래비용'을 줄이고, 테스트베드·규제특례(안전·의료·데이터)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셋째, 민간투자와 글로벌 연계다. AC/VC와의 동반 설계, 다국적기업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공동 실증·공동R&D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정주여건 강화다. 기술·일자리의 유입이 삶의 질 개선(교육·의료·문화·주거)로 이어지도록 '사람 중심'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법적 기반과 지역 역량, 공간·산업 전략과 집행 거버넌스를 모두 갖춘 사례로서, 한국형 광역 기술사업화 모델의 정답을 제시하고자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성공적인 지정 그리고 운영 속도와 일관성이다. 계획이 현장의 성과로 연계될 때, 강원은 동북아 혁신 회랑의 관문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4. 글로벌/광역협력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경남TP, 사천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추진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중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공장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에 경남TP는 사천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남TP는 그동안 선정평가를 통한 총 6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는가 하면 수출박람회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국내외 기업에 홍보하는 등 사업설명회 개최와 함께 사업 개요, 수혜기업 지원방안,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경남TP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계측 및 제어 인프라 구축 △맞춤형 FEMS 설치 및 운영 △TOC(-Total Operation Center) 및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및 에너지 컨설팅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기업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운영 후에는 성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플랫폼 고도화와 지속적인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사천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천산업단지가 디지털·그린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경남일보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615>)

경남테크노파크, 제조 DX·AX 기술교류회 열어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조 DX(디지털전환)·AX(자율전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류회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제조 DX·AX 추진전략과 산업별 솔루션 구축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부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참여하며, 경남도, 창원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관기관), 경남TP,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등이 함께하고 있다. 경남TP는 지역 DX·AX 산업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정보·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제조 특화 생성형AI 도입을 통한 AI 협업 공장 구축(주)디엑스솔루션즈 김종인 대표)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I와 차세대 핵심 기술(주)위세아이텍 박준용 팀장) ▲탄소중립형 생산 일정계획 수립을 위한 이중목표 최적화 모델 설계 및 제조기업 적용 사례(연세대학교 권상진 교수) 등 제조DX·AX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후 경남 지역 제조기업과 연구기관, 솔루션 공급업체가 DX·AX 관련 최신기술과 산업별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추진 사례와 기술적 노하우를 직접 청취하며 자사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5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유공자 간담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시는 2023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산업혁신에 기여한 연구개발 유공자 4명에게 '2025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월 14일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유공자와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유공자 포상은 2023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의 수행책임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과평가는 총 37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매출, 기술이전, 논문, 특허 등 정량성과와 사업 수행의 책임성·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하위 등급을 구분하고, 심의평가위원회의 엄정한 검토를 거쳐 우수사업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후각융합연구센터 지원사업, 물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안광학제품 신뢰성 기반활용 기업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등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표창 수여식 이후에는 유공자와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지역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전략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차기 성과평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구연지단은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보상체계를 정례화하여 연구자의 동기를 높이고,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추진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9년째 운영 중이다.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는 차년도 부산광역시 재정이 지원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유형의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예산 배분·조정제도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평가조정위원회의 기술전문위원회의 2단계 검토(사전 및 대면 검토)를 통해 예산 배분·조정 방향이 1차로 제시되고, 이후 부산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예산 배분·조정(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지역 내외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3기 기술전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5대 분과(▲기계·제조 ▲디지털 ▲해양·그린에너지 ▲라이프케어 ▲기술혁신인프라)별 기술전문위원이 2026년 예산배분·조정 제도에 참여하였다.

부산시와 BISTEP은 부산연구개발사업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전문위원회를 통해 근거있는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한정된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참여자(사업 담당자, 기술전문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도자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7_0003304799

전남도, 2026년 R&D예산 '차세대 융합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40억 원 투입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이 사업은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암세포 내성에 대응하는 미래형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면역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합 기술 연구를 통해 암 환자 치료 효과성을 높일 전망이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전남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다. 화순에 위치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NIIC)를 핵심 실행 기관으로 활용해 원천기술 개발부터 임상 시험,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남도과 화순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민간 바이오헬스 기업과의 연계도 예상된다.

기대 효과로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암 환자 생존율 향상이 꼽힌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AI-에너지와의 융합으로 초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배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참고사이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435>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발대식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테크노파크는 10월 1일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 주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1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혁신체계 구축을 주도할 계획이다. 협약식과 함께 열린 기술세미나에서는 유가금속 회수·재활용 기술과 실리콘계 복합음극 소재 개발 방향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연구 개발 동향과 산업화 전략이 공유됐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단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결해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허브 실무자 협의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테크노파크는 10월 2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역 기술혁신허브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1차년도 성과 점검과 함께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사업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이후 처음 열린 실무자 중심 회의로, 참여기관들이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과제와 연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전문가를 초청해 '통합Ezbaro 시스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협약부터 집행·정산까지의 사업비 관리 절차를 실습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허브 협력기관 관계자는 "이번 Ezbaro 실무 교육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세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직접 익힐 수 있어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전북테크노파크와 긴밀히 협력해 허브사업이 지역 기술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 중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제2회 제주 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21일, 2025년 제주 과학기술위원회가 두 번째로 열린 가운데,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으로 제안하기 위한 지역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제주지역 내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제1회 과학기술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2027년 중점 신규사업 제안서(RFP) 8건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RFP 검토를 통해 2027년 중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회 제주 과학기술위원회가 열렸다. 제2회 위원회는 RFP 기술분야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8건의 RFP를 제주가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복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이 논의되었다.

긴 논의 끝에 제주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중점 과학기술분야인,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제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당위성 및 구체성이 확보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논의된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역 중점 신규사업 수요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역 혁신성장 촉진' 위한 R&D 지원체계·전담기관 고도화 연구 착수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구지단)은 지역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역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및 전담기관 기능 고도화 전략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가·지역 과학기술정책 변화 맥락 정리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제도 기반(위원회·소위원회·전담기관) 정밀 분석 △광주형 전담기관 운영모델과 단계별 전환 로드맵 제시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통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 지역 R&D 전담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 기반을 실질화하고, 위원회-소위원회-전담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형 R&D 거버넌스 모델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연구지단은 이미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규정안(안)」과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마련, 분야별 실무 심의·기획 역량을 보강하는 체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전담기관 역할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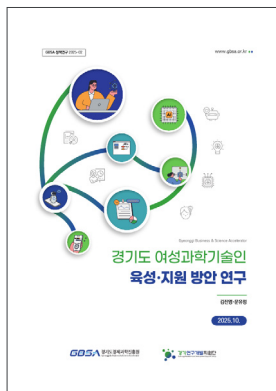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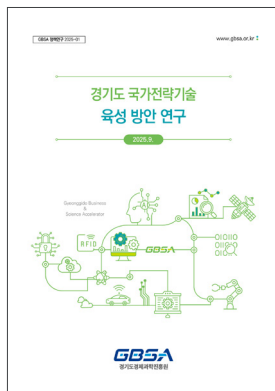
광주연구지단은 지난 9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전략과 산출물 구조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정책·사업기획, 조사·분석, 네트워킹, 성과관리 등 핵심 기능별 역량보완 방향과 중앙정부와의 정책·예산 연계체계 정비, 단계별 전환 로드맵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획-집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광주형 R&D 전담기관 모델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R&D 효율화와 혁신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국가전략기술·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의 지역 R&D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연구'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연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혁신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3대 분야와 8개 중점기술을 도출해 지역 맞춤형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방안 연구'는 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인재난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인력 양성, 경력개발, 경력단절 현황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두 보고서를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반 확충에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역 R&D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industrial_trend.do

경남TP,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기술세미나'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에서 경남도, 창원시, 가스터빈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스터빈 소재·부품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의 지원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관련 산·학·연의 ▲전력산업 이슈와 남동발전 수소사업 추진전략 ▲가스터빈 고온 부품 보수공정을 위한 W-DED 기술개발 추진 현황 ▲금속 적층제조 소재 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Laser Cladding 기술을 활용한 가스터빈 블레이드 재생 수리 ▲Co-Cr 합금을 활용한 합금분말 및 선재 공정 기술 개발 ▲가스터빈 관련 소재·부품 손상 원인분석 사례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사업 수혜기업의 발표도 진행됐다. 갯테크는 '가스터빈 고온 부품을 위한 첨단 적층 제조 분말 소재 개발 현황'을, 터보링크는 '유체운할 베어링 성과'를 소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국내 가스터빈 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시험·검증 인프라 활용 방안,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 연구기관·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후속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기술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도자료

시사캐스트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81164>)

경남TP,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개발 기술 역량 강화' 업무협약 맺어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한국재료연구원(원장 최철진, 이하 KIMS), 포항소재산업진흥원(원장 김헌덕, 이하 POMIA), 동의대학교 융합부품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소장 이원재, 이하 동의대), 한국폴리텍VII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이상태, 이하 창원폴리텍대)과 4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개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TP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전략적 기획 및 공동 과제 발굴을 목표로 한다.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시제작·시험·평가·인증 등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R&D 전 과정을 연계한 원스톱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산업의 지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은 앞으로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산업의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기반조성/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추진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산업의 산·학·연·관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화, 판로모색 등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업무협약 목적에 부합한 연구 개발 장비의 연계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극한 환경용 금속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관련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기술 자립,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IMS 이상복 본부장은 "KIMS의 첨단 금속 복합재료 연구 역량과 지역 간 산·학·연의 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결합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 자립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IA 박병호 박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 분야에서 광역권 연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조일국 부소장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관련분야 석·박사인력 양성, 현장 실증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속 복합소재·부품 관련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폴리텍대 이상태 산학협력단장은 "금속 복합소재·부품 관련 지역 내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TP 엄정필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경남지역 극한 환경용 금속 복합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뉴스메이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8872>)

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추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제)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023-196호

「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구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기술 및 경영혁신형 인증지원 확보를 통한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확대
 - 지역 유망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 인증서에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 주소가 기재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 각 인증별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원체의 대상일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지원여부 통보일 ~ 2025.12.5.(금)까지
- 지원내용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신규 및 연장 수수료 지원
 - 기업별 인증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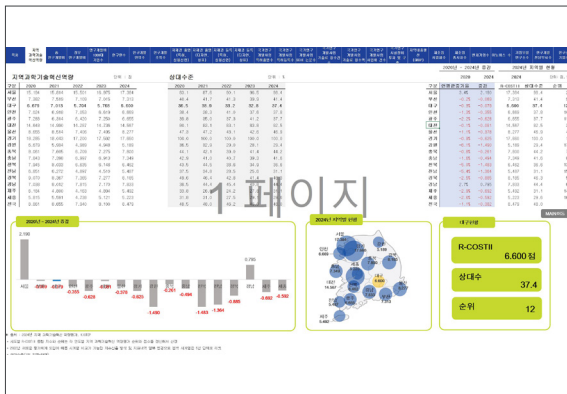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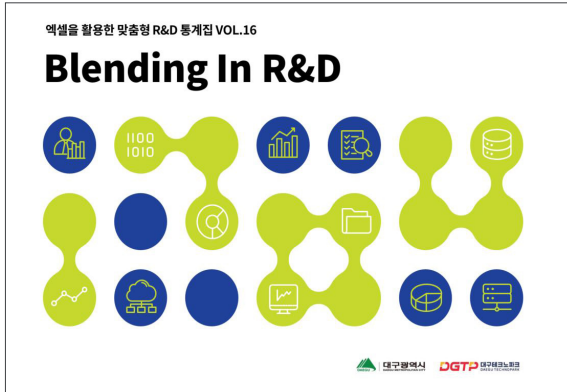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정부가 운영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취득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이 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지원사업 수혜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2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신규 및 연장)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은 물론,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인증 준비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인증 획득 시 금융·세제·판로·수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이후에는 R&D 과제기획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후속 지원도 병행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경영혁신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R&D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며, 인증-컨설팅-R&D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https://ttp.org/bbs/BoardControllView.do?bb-sld=BBSMSTR_000000000003&nttl=15052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매년 두 차례 지역의 과학기술 현황과 R&D 주요 통계를 수록한 「Blending in R&D」 온라인 통계집을 엑셀(Excel)을 활용하여 발간하고 있다.

16번째로 배포되는 이번 호에서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총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개발조직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9개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다.

「Blending in R&D」는 엑셀 기반의 온라인 통계집으로 지역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과학기술 역량, 산업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집은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도별 순위, 연평균 증가율, 그래프, 계산식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맞춤형 통계집 발간을 통해 연구수행 주체들이 지역 과학기술 및 R&D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역의 우수한 연구성과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가독성 높은 자료 제공을 통해 과제 기획 및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dtis.re.kr) — 발간자료 — R&D성과확산

AI와 바이오로 부산을 재점화, '제11회 부산R&D주간'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광역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1회 부산 R&D주간」을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는 '미래 혁신기술로 부산을 재점화'를 주제로 미래 기술 관련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과학기술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부산지역 연구개발 우수성과와 부산과학기술 혁신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염한웅 POSTECH 교수가 '혁신과 전환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을, 안현실 UNIST 부총장이 'AI 시대 최후의 산업 전쟁, 지역 과학기술 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AI 정책 콜로퀴움, 미니 심포지움(바이오헬스 분야), 부산 과학기술인 정책포럼, 부산 미래기술 혁신포럼, 역량강화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미래 혁신전략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부산의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정책 공감대 형성, 전문가 네트워킹, 우수성과 확산, 지역 간 협력 강화,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등 다층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실행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부산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혁신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며, 부산이 미래 전략기술 중심의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no=339012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92910394414460>

2025년도 부산지역 연구개발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2025년도 부산 지역 연구개발 우수성과' 성과발표회를 제11회 부산R&D주간 개막식 사전행사로 지난 9월 25일 개최하였다.

올해 우수성과는 부산지역 연구자가 창출한 혁신적인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 성과를 대상으로 7월 공모하였으며, 총 41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8월 전문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성과 8선(연구혁신 2선, 산업진흥 2선, 우수학술 4선)을 선정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연구혁신·산업진흥 부문에 선정된 총 4명의 부산광역시장상 수상자가 발표를 맡았으며, 지역 내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연구혁신 부문은 과학기술적 성과 및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성과로 ▲'비접촉 자극응답형 생체모사 스마트 소재 및 지능형 구조제어 기술 확보'(부산대학교 김채빈 교수), ▲'국내 해양소재 굴 유래 유산균발효굴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원료개발'(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이배진 대표) 주제로 발표하였다.

산업진흥 부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성과 및 지역 산업진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 성과로 ▲'풍수해 대응용 배수식타이셀 기술을 이용한 반구형 월파저감시설 개발'(주)유주 김상기 대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고속의 불량 탐지 비전 시스템'(부산대학교 최윤호 교수) 주제로 발표하였다.

BISTEP은 부산지역 연구개발 우수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여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연구개발 성과가 발굴되어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온라인보도)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_0250918_2011005533

(지면보도)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92518091297776>

세종시, '양자산업 거점도시' 시동.. 한국양자산업협회와 맞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시가 한국양자산업협회와 손잡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시는 22일 시청 세종실에서 한국양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산업 육성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양자산업협회는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기획 △양자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기술 교류 △양자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등에 나선다. 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 △양자 관련 행사 공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등 다방면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알고리즘 실증·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기술 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및 주요 도시 간 협력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을 양자 알고리즘 상용화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민호 시장은 “양자 관련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기업 육성, 기술 실증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한국양자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종을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daejeonilbo.com/news/curationView.html?idxno=2234053>

보도자료

세종시 - 보도자료

*출처 :대전일보(<https://www.daejeonilbo.com/>)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제4차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제4차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울산광역시를 통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차 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로 접수된 시비 매칭 사업의 기획-수행-성과확산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을 중점으로 개최하였다.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2025년에도 지속적인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12월까지 기술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산업기술 중심의 도시로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초 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인천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 (반도체 후공정 분과)

인천연구개발지원단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를 운영하여 전략산업별 R&D 아젠다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분과는 인천이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기업 역량을 토대로 HBM4 대응 기술 확보와 지역형 생태계 조성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연구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본딩 핵심 기술 확보 방안, △소부장 국산화 및 맞춤형 R&D 지원 전략, △공동장비 활용과 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전문가 회의 운영 과정

- 1) 1차(5/14) :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확보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인천형 후공정 로드맵 수립
- 2) 2차(6/25) : 글로벌 패키징 트렌드 분석 및 인천 적용 전략 검토,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 추진방안 논의
- 3) 3차(7/23) : 하이브리드 본딩 산업화 과제 및 실증사업 구체화, 전공정-후공정 연계형 R&D 방향 제시
- 4) 4차(9/2) 인천 특화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현황 공유, 장기 지원체계 및 청년 R&D 인력 교류 확대 논의

인천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 (반도체 후공정 분과)

인천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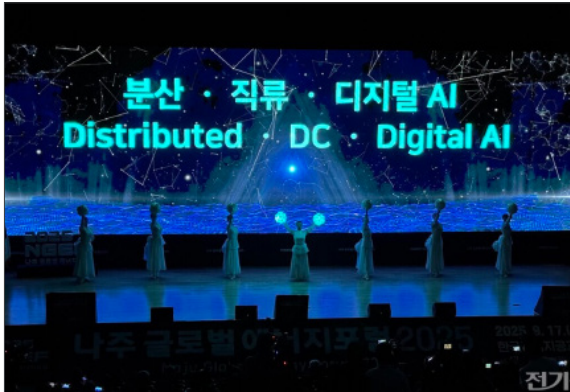
■ 기대효과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인천 지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지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②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반 확립, ③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공동활용 체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이 국가 전략기술의 첨단 패키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5, 'DDD-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열다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 나주시가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전남도·나주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공동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5(NGEF 2025)'가 17일 개막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17~18일 이틀간 KENTECH 캠퍼스에서 개최되며, 'DDD-에너지 전환(분산·직류·디지털 AI)'을 대주제로 전 세계 에너지 석학과 기업인,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에너지 전략을 모색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개막식 직전 윤병태 나주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포럼에 초청받아 영광"이라며 "잠재력이 큰 KENTECH에서 그래핀 연구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구현의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는 'DDD 에너지 전환'이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거버넌스, 직류(DC) 기반 인프라, 분산형 생산·소비 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AI 기반 에너지 거버넌스 ▲분산형 인프라 ▲DC 기반 전력망 설계 및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개발·실증(RD&D)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날 진행된 세션1 'AI for Energy'에서는 신정규 래블업 대표가 'Power at the Crossroads: Energy Strategies for the AI Revolution(변곡점의 전력: AI 혁명 시대의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신 대표는 "AI 혁명이 산업 전반의 전력 수요와 공급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AI 기반 예측·제어 기술을 활용하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AI와 에너지를 통합한 새로운 전력망 설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김성철 한전KDN 전력 ICT연구원장,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 강명구 디지털이에스 지얼라이언스 사무총장, 손경중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KIoT) 부회장, 마기평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보안사업팀 수석 등 국내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전KDN AI 미래 전략 ▲AI 기반 전력거래 및 입찰 최적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DX/AX 생태계 구축 ▲전력망 안정화 ▲지능형 보안 인프라 구축 전략을 공유했다.

나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DC·분산형 전력망 전환이라는 DDD 전략을 정책과 산업 전환으로 연결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포럼 기간에는 기조연설 외에도 세션별 토론, 시민특강,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이어지

참고사이트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융복합 연구회 TF1팀 기획회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융복합연구회' TF1팀은 10월 1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AI 기반 양식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4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2025년 융복합연구회 기획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양식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 순환양식 기술의 경제성 및 확장성, AI 자율운영 플랫폼의 실증 가능성, 관련 부처 제안 및 정책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점검했다.

융복합연구회관계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양식산업 고도화는 지역의 수산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제26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 개최 - AI와 제주 산업의 융합방안 모색 -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4일 산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제주 산업의 융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6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범용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관광, 농업, 바이오 등 제주지역 특화산업과의 융합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따라 산업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 발표는 ▲산업연구원의 '제주주축산업별 AX(인공지능) 적용 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AI 기반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지원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관광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화 형태의 제주 여행 LLM(대규모 언어모델)서비스 개발, 연구개발 비용과 소요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한 청정바이오 소재 활용산업 연구개발, 분산에너지 설비에 대한 디지털 센서 설비 부착과 도내 스마트그리드 관제설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처리시스템 구축 등 제주 지역산업에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제시되었다.

객석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적극적인 AI 도입을 위하여 국내 데이터의 표준화 및 축적화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필요, AI 전문가 인재 육성, AI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 간 지속적인 협업 필요, 산업기술에서 AI가 가능한 영역의 세분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향후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AI를 연계한 지역기업의 R&D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386>("인공지능 활용 못하면 도태... 제주 특화산업, AI전환은 필수", 헤드라인제주)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882>("관광, 바이오, 분산에너지 등 제주특화산업, AI융합 필수", 미디어제주)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경기도 중점기술 R&D기획 연구회 본격 가동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17일 '중점기술 R&D기획 연구회 Kick-off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중점기술 연구개발 기획을 본격 추진했다.

'중점기술 R&D기획 연구회'는 경기도의 미래 유망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기획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를 통해 R&D 기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 운영 목적, 일정, 성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과 연구회 지원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각 기술 분야별 위원장을 선임하고, 연구 테마와 세부 구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회는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총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향후 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획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기획안을 향후 경기도 R&D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R&D 기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R&D 지역혁신포럼' 개최...AI 시대 R&D 전략 논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서울 삼성호텔에서 'AI 시대 R&D 혁신정책, 기업과 지역에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K-R&D 지역혁신포럼'을 열었다.

기업·연구기관·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산업계 AI 도입 전략과 기업 혁신,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강연에서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소버린 AI의 이해와 한국 AI 산업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AI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최홍준 업스테이지 부사장은 금융·법률·의료·제조 분야 AI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 도입을 넘어 데이터·모델·업무절차 연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종민 산기협 팀장이 '기업 R&D 투자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을 통해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연구인력 위기를 지적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과 연구 인력 재교육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이승 단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R&D 전략'을 발표하고 "수도권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초광역 연계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보도자료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0924500203>

경남TP, 'The Next AI'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 구축 성과 선보여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주관하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Total Operating Center Plus) 구축사업' 성과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25 The Next AI'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단순한 공장 단위 효율화 수준을 넘어, 국제표준 기반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관리 체계까지 지원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OC+는 ▲공장에너지·온실가스 측정시스템(FEMS+) 실증 ▲제품 탄소발자국 SaaS 개발, ▲국내형 LCI DB 구축, ▲AI 기반 공정 최적화 ▲글로벌 규제 대응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 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KTL이 총괄을 맡아 플랫폼 설계와 실증·운영 전략을 관리하고 ▲엔포스(주)는 FEMS+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 관리 구축을 ▲(주)켄토피아는 TOC+ 플랫폼 개발을 ▲(주)에코엔파트너스는 전과정평가(LCA)와 기업별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연계와 교육·홍보를 ▲경남TP는 지역 산업단지 확산과 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경남TP는 이번 전시에서 TOC+ 플랫폼의 구조와 참여기관별 성과를 소개하며, 산업단지 기반 저탄소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실시간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제품 탄소발자국 SaaS 기능을 시연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는 기관별 전문성을 모은 집합적 성과물"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국제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국가산업단지 제조산업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뉴스경남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187>)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협의체 열고 지원방안 논의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30일 경남TP본부에서 코리아지식산업센터 소재 중소기업 대표, 밀집지역 전문가,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TP 위기지원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FGI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남TP는 2023년도 5월부터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기별 FGI협의체(Focus Group Interview)를 개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마련 및 필요 정부정책 등을 논의하여 지역경제 전반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입주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코리아지식산업센터 현황, 애로사항, 해결방안 및 필요 정부 정책 ▲지식산업센터 관련 산업 현안 및 건의사항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밀집지역 연계지원사업 안내, 발전방안 및 정책제언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로 분류되고 있으며, 코리아지식산업센터는 '12년 민간주도로 설립된 대표적 지식산업센터로 정밀가공 및 금형가공 분야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협의체로 지식산업센터의 중소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 지역애로를 파악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남TP는 앞으로도 경남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방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뉴스메이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70>)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고도화

경북연구개발지원단



영남권(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주민들이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2025 영남권 과학축제’가 오는 27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도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남·경북·부산 과학문화거점센터와 영남 생활과학고실험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AI 오목 로봇, AI 로봇 축구 등 인공지능 체험 △영남권 지역거점센터 및 생활과학고실이 참여하는 전문 과학 체험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종이집 만들기,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이동식 천체투영관 체험 등 최신 과학 트렌드와 지역 특화 산업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후 2시에는 AI 매직쇼가 메인무대에서 열려, 로봇 제어와 예술 시스템,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영남권 과학축제는 과학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시키고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과학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상남도·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발전과 저소득·소외계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gbtis.re.kr

2025년 지역현안해결형 R&D 기획지원 과제선정 및 협약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이 직면한 현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지역현안해결형 R&D 기획 및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5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간의 본격적인 기획 단계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2025년도 지역현안해결형 R&D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립한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기획지원 프로그램으로, 대구형 지역현안 발굴체계 플랫폼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을 해결 가능한 R&D과제로 구체화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로 연계시키는 데 있으며, 기획연구회 운영비, 전문가 자문, 기술조사 및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평가 항목은 사업의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타당성, 성과의 구체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접수된 16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들은 교통, 복지, 안전, 에너지, 폭염, 환경 등 6대 지역현안 분야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목표로 한 기획형 R&D 모델로,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및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은 7월 29일(화)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금천구 공군부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업·주거·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남권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는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 △고석찬 단국대 교수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훈 강원대 교수 등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전문가를 비롯해, 금천구 도시계획과와 서울테크노파크 전략기획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부지의 규모와 기능, 도시혁신구역의 규제완화 요소, 산업·공공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며 ▲서남권 혁신관문도시로의 발전 전략 ▲산업·연구·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용도 개발방향 ▲지역산업 및 주거공간의 연계 구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를 서남권 핵심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R&D·정책기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지역혁신 기반 확충과 기초지자체 단위 산업·과학기술 정책 모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장미산업 기본전략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은 9월 15일(월) 중랑구청에서 화훼·산업·문화·축제·지역 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중랑구 장미산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이 추진 중인 「중랑구 장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중랑구 대표 축제인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랑구에서 추진 중인 장미 관련 사업을 검토하며 ▲장미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 ▲장미 축제와의 산업적 시너지 창출 ▲문화·관광 자원화 전략 ▲브랜드 가치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랑구는 매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기반으로, 장미를 단순한 축제 소재가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확장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팜·뷰티·헬스·디자인·브랜딩 등으로의 연계를 검토하며 장미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 중랑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미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https://www.madcl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0>

「2025년 미래도시

서울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은 2025년 10월 27일(월) 서울테크노파크 스마트홀에서 「2025년 미래도시 서울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서울 시민·기업 종사자·대학(원)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울의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위해 5개 분야(①과학기술 진흥, ②전략산업 육성,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지역·도시문제 해결, ⑤기타)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심사는 혁신성·창의성, 실행 가능성, 자원 투입 적정성, 정책 부합도, 논리성 등 5개 항목(7개 세부지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민 부문에서 6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공모전의 대상은 '서울 트윈가드(Seoul Twin-Guard): 디지털트윈 기반 열저감 운영 플랫폼'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도입', '데이터 기반 라이더 안전 및 도시 조화 프레임워크', '시민 제보 기반 AI 도시 현안 해결 플랫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서울의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 우수 아이디어의 후속 지원을 통해 정책·사업 기획(안), 정책 연구 보고서 등을 마련하여 서울의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이 현장과 시민 삶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kspost.biz/news/articleView.html?idx-no=1841>

산불 대응 미래를 그리다... 방재 R&D 사업 기획 마무리 박차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에서 기획 중인 디지털 기반 산불 예측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맞춤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산불 방재 분야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8월까지 기술 수요조사, 세부과제 구성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9월과 10월에는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며 세부 내용과 사업비를 조정하고 과제 연관도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번 이어질 회의에서는 작성된 RFP를 최종 보완하고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최종 기획보고서를 완성하여 국가 R&D 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과 업무협약(MOU) 체결

- 충북 AX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그린산단 활성화 기반 마련 등 협력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안광혁)와 '충북 AX(AI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2일(화)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AX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그린산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AX 공급·수요기업 발굴, ▲AI 리터러시, AX 역량강화 교육, ▲AX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AX를 도입하여 충북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협약으로 충북 AX 산업혁신 사업의 경쟁력과 인프라, 공동 프로젝트 발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충북 전략 산업 중심의 AX 사업을 통해 충북이 AX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충북 디지털 기업들의 성공적인 AX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충북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 전략산업 중심 AX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보도자료

<https://www.koreasisailbo.com/1938161>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역사회 현안 해결 위한 민·관 협력형 R&D기획 본격화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과학기술본부 내 유관 센터들과 협력하여 신규 R&D 기획 추진을 위한 킥오프 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I 기반 도로정보 민·관 통합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획 착수를 알리는 자리로, 기상이변에 따른 도심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지역 내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기획 단계로 마련되었다.

현재 광주시는 재난·재해 발생 시 도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도로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기획 방향과 역할 분담, 향후 연구개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 기관 및 지역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기획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기반시설 관리체계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민·관·산·학 협력형 R&D 추진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앞으로 도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 첨단소재 AX 혁신거점 조성 방향 모색

- AI 전환(AI) 전 주기 지원...에타급 국가사업 기획 본격화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5일(금) 전국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AI 전환(AI)을 기반으로 한 첨단소재 혁신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충북을 대표하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 기반을 토대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LG AI연구원, 에코프로, 인세라솔루션, 충북대학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북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소재 개발 전 과정에 AI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차별화된 전략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행착오적 연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북이 가진 산업 기반과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인프라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갖췄다는 데 공감했다.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첨단소재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전 과정 지원 체계를 에타급 대형사업으로 발전시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은 "첨단소재 혁신은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며, "충북의 첨단소재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에타급 사업으로 연계·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07010002420>

4. 글로벌/광역협력

춘천바이오산업 대전환 심포지엄(AI·양자 융복합 혁신)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2025년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 바이오산업 대전환 심포지엄(AI·양자 융복합 혁신)을 10월 14일 춘천ICT벤처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일보가 주최하고 (재)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춘천시장, 강원일보사장 등 137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로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 "AI, 바이오, 양자 국가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총장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는 국가 전략상 게임체 인자라고 불리며 전략이 기획되고 연구, 산업,

교육 분야에서 예산의 힘이 실리는 핵심적 산업들이며, 바이오는 AI, 양자 시장을 뛰어넘는 폭넓은 시장 규모를 지녔고 AI, 양자, 반도체와 결합했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양자는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모든 나라가 거의 동일선상에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로는 정현철 (주)노르마 대표가 "Quantum Computing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송시영 (주)JNPMEDI 이사는 "양자-AI 기반 융복합 바이오 산업 성공을 위한 조건"을, 장소용 (주)셀트리온 이사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소개"를, 오한빈 서강대 교수는 "AI와 양자의 융복합으로 풀어나가는 바이오 독성 연구"를, 마지막으로 손병희 (주)마음시 연구소장은 "Physical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를 발표했다.

이후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천 바이오 산업을 AI, 양자 컴퓨팅과 융복합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AI와 양자 컴퓨팅은 신약 개발의 핵심 데이터를 발굴하는 난제를 해결할 해법이므로 춘천의 인프라(강원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대학, 혁신 기관 등)를 AI 양자 시대에 맞춰 혁신이 필요하며 이때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앞으로 (재)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현안과 미래 과학 기술 전략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102113511204728>

수도권-강원 연구개발지원단, 바이오헬스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공동 워크숍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수도권과 강원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이 광역 단위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5년 광역(수도권-강원)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제2차 공동 워크숍'이 10월 20일 서울역 공향철도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을 비롯해 경기, 서울, 인천연구개발지원단 단장 포함 실무자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도권-강원권 연계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고도화 및 신규 과제 발굴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연구 인프라와 산업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 연구회 운영 및 정례적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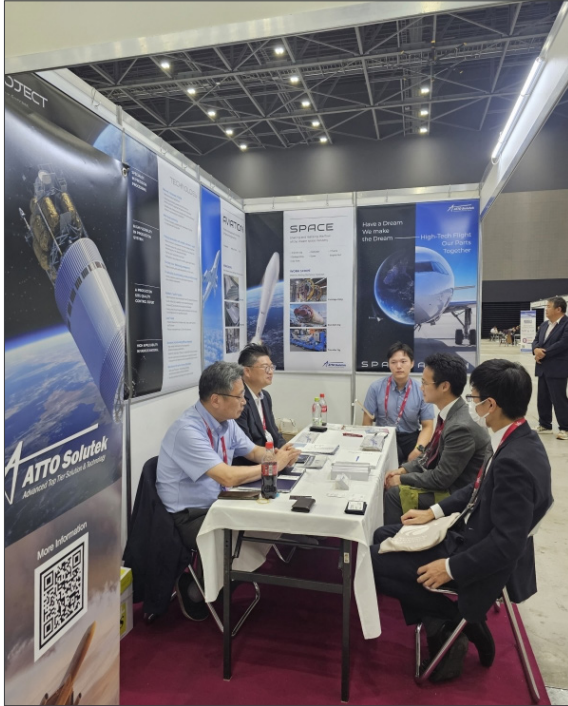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연구회 구성과 정기 포럼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핵심 실행주체 중심의 기획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각 지역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지원단들은 11월까지 협의회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6년 수도권-강원 광역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넘어, 수도권과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이 함께 국가 연구개발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TP, 경남도와 '도내 항공기업 일본 시장 개척' 지원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는 경상남도과 도내 항공기업 7개사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린 '2025 에어마트 나고야'에 참가해 총 113건, 65.03 백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디케이락, 씨엔리, 아토솔루텍, 엔디티엔지니어링,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하이즈항공, 한국카본 등 도내 항공기업 7개사가 참가했으며, 전 세계 20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일본의 미츠비시, 가와사키 등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자사의 주력 제품과 공정을 소개하고, 보유 인증과 경쟁력을 홍보하며 활발한 상담을 전개했다. 경남 TP는 2023년 경상남도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이치현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도자료

시사캐스트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0>)

경남TP, 2025 영남권 과학축제 밀양서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영남권(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주민들이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2025 영남권 과학축제'가 오는 27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도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남·경북·부산 과학문화거점센터와 영남생활과학교실험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AI 오목 로봇, AI 로봇 축구 등 인공지능 체험 △영남권 지역거점센터 및 생활과학교실이 참여하는 전문 과학 체험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종이집 만들기, 밀양 아리랑우주천문대 이동식 천체투영관 체험 등 최신 과학 트렌드와 지역 특화 산업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후 2시에는 AI 매직쇼가 메인무대에서 열려, 로봇 제어와 예술 시스템,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영남권 과학축제는 과학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시키고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과학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상남도·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발전과 저소득·소외계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보도자료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313>)

2025년 지역과학기술혁신세미나(지역 모빌리티 미래전략)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9월 10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2025년 지역과학기술혁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속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전기·자율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과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기술·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대경권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의 대응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전략기술 첨단 미래모빌리티 기술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형 자동차 기술 발전의 국가 전략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미래 모빌리티 국제표준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표준화 동향과 국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현대파츠닥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 전략'을 주제로 원가절감, 구매전략, 디지털 전환(DX), 글로벌시장 진출 등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조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혁신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향후 지역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대구가 전국적인 모빌리티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 추진단 기획위원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9월 10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2025년 지역과학기술혁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속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전기·자율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과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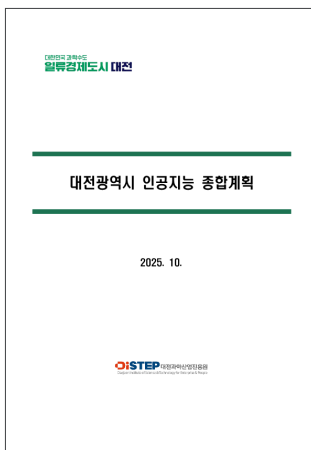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기술·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대경권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의 대응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전략기술 첨단 미래모빌리티 기술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형 자동차 기술 발전의 국가 전략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미래 모빌리티 국제표준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표준화 동향과 국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현대파츠닥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 전략'을 주제로 원가절감, 구매전략, 디지털 전환(DX), 글로벌시장 진출 등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조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혁신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향후 지역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대구가 전국적인 모빌리티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313>)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수립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10월 22일 수요일, 「대전광역시 AI 종합계획 수립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또한, 연구회를 통해 수립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 육성 종합계획」, 대전시의 새로운 혁신의 서막을 알렸다.

대전 AI 종합계획은 정부의 「AI 분야 100조 투자」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력을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과 사회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및 전망 등 환경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분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대전시의 인프라와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AI 활용 사업화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연구개발 기반 강화와 포함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인공지능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단순히 AI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의 '과학 중심 수도'로서 국가 AI 강국 비전 실현의 핵심 거점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방안 브릿지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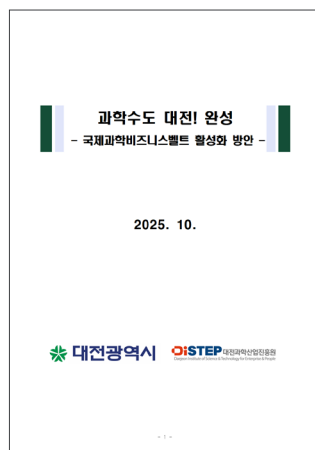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9월 17일(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브릿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손철웅 실장을 비롯해 대전시 관계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동한 원장, IBS 종이온가속기 연구소 배석현 부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경주 PM, 한남대학교 신윤식 교수, 대전연구원 강영주 선임연구위원, 세종테크노파크 배동수 팀장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의 BT, MT, ICT와 같은 주요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성장지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종이온가속기를 활용한 방사성 의약품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수도 대전! 완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대전시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과학 비즈니스의 글로벌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세종시-일본 교토, 스마트시티 도시 미래 나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시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교토 지역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힌다.

세종시와 교토부는 2023년 한일지사회의에서 당시 교토부 부지사의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을 계기로 스마트시티·문화 분야 중심의 도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토부와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 외교 동반자로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도시 미래 비전을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대표단은 30일 오사카 소재 코트라(KOTRA) 오사카 무역관을 찾아 일본 경제 동향을 청취하고 세종시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2025 오사카·간사이엑스포 개최지인 유메시마 현장을 찾아 주요 국가 전시관 운영 사례를 살핀다. 2일에는 교토 게이한나 오픈이노베이션센터(KICK)에서 열리는 '2025 교토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디지털 행정 등 세종시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확산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엑스포 벤치마킹을 통해 세종 스마트시티 구축의 첫걸음인 미래경제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767>

보도자료

세종시 - 보도자료

*출처: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인천 과학기술인 혁신 네트워크(I-Connect) 출범식

-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의 장, 인천에서 새로운 혁신의 시작 -

인천연구개발지원단



2025년 10월 29일, 송도국제도시 웨라톤 호텔에서 「인천 과학기술인 혁신 네트워크(I-Connect)」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인천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인천TP)과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 새출발

이번 출범식은 인천 지역 과학기술인들의 상호 협력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공식 네트워크의 첫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의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기업 연구소 등 120여 명의 지역 과학기술인이 참석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인천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 인천 혁신기관 MOU 체결 및 출범 퍼포먼스

행사의 첫 순서로 인천형 과학기술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극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14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 인천 과학기술 펠로우즈 공식 위촉

이어진 「인천 과학기술 펠로우즈(Incheon Science Fellows) 위촉식」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16개)이 공식 위촉됐다.

인천 과학기술 펠로우즈는 2025년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과학기술 전문가그룹으로, 공모를 통해 총 55개 그룹이 신청, 이 중 16개 그룹이 최종 선정되었다. 펠로우즈는 반도체·첨단소재, AI·디지털·빅데이터, 로봇·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한다.

그룹별 연구책임자에게는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위촉장과 현판이 수여되었으며, 앞으로 인천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R&D 협력, 공동연구 기획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 과학기술인 혁신 네트워크(-Connect) 출범식

-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의 장, 인천에서 새로운 혁신의 시작 -

인천연구개발지원단



공유·확산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은 협력과 개방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 향후 추진방향

인천시는 이번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지역 내 연구기관·대학·기업 간 협업 체계를 정례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형 R&D, 공동 기술기획, 인력양성 및 국책사업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이 ‘과학기술로 연결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 인천 과학기술인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구분	시간	행사내용
오프닝	09:30-10:00	환영사 및 축사
개회	10:00-10:10	개회 및 국민의례, 주무관(내빈) 소개
	10:10-10:20	개회사 및 축사
본행	10:20-10:30	인천광역시 혁신도시 업무협약(MOU) 체결, 출범식 발표영상 및 3분 기획영상
	10:30-10:45	인천 과학기술 활동유망(Incheon Science Fellows) 위촉식, 단원 기념촬영
종료	10:45-11:00	폐식
2부	11:00-11:30	특별강연: “기술활성시대, 우리의 생존전략” -산업, 공유, 확산, 미래를 잇는 혁신생태계-
폐회	11:30-13:00	폐회 & 오찬 & 네트워킹

특별강연



장응성 상임교수(공학박사)
포스코미래올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임팩트
“기술활성시대, 우리의 생존전략”
-산업, 공유, 확산, 미래를 잇는 혁신생태계-

인천 과학기술 활동유망(Incheon Science Fellows)

번호	그림명	연구분야	소속기관(세종대/포스)
01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2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3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4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5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6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7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8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09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0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1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2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3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4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5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6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7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8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19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20	신소재 나노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신소재 나노 소재



충청권 광역과학기술혁신포럼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권 과학기술 진흥기관이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뭉쳤다.

충남연구원은 18일 연구원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충북 과학기술혁신원과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공동 R&D 기획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기관들은 △지역 간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정책 연계 협력체계 구축 △지역 R&D 과제 공동 기획과 수행 △전문 인력·인프라·데이터 등 자원의 상호 활용 △지역 균형발전에 기반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대전·충남·충북은 각 지역의 뛰어난 연구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서로 공유·협업하면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청권의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과학기술 성과 창출 모델 개발 등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기관은 물론 임민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대전·충남·충북 연구개발지원단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김혜선 충남도 미래정책과 주무관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 진흥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충청권 과학기술혁신포럼’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맞춤형 AI 전략과 신기술 융합 사업, 디지털 혁신 추진 사례 등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도자료

<https://news.tf.co.kr/read/national/2245440.html>

충북도, 'AI 도입 전략 세미나'로 기업 혁신의 길 열다!

- AI 도입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에 1:1 컨설팅 지원 및 실천 전략 제시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도는 9월 10일(수) 오후 2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에서 도내 기업의 AI 전환(AI) 촉진과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한 'AI 도입 활성화 지원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기업들이 AI를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국가·기업·지방정부의 역할 ▲생성형 AI와 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AI 전환 사례 ▲국내 제조기업의 AI 도입 사례 ▲충북 기업의 AI 도입 여정 등이 발표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LG AI연구원과 (주)업스테이지 관계자가 강연을 진행하면서, 도내 기업들에게 AI 도입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차 세미나에는 당초 예상(50명)을 크게 웃도는 93명이 참석해 AI 정책·산업 동향과 기업 혁신 사례를 공유했으며, 사전 신청한 다수의 기업들이 세미나 종료 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에 참여해 AI 도입의 실질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완화하고, AI 전환(AI) 가속화를 위해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분석과 AI 솔루션 도출 및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I 구축을 지원하는 '충북 AI 도입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9월 17일(수)까지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알림마당-사업공고, <https://www.cbi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란 충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2차 세미나는 1차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AI 도입 전략을 제시한 자리"라며, "앞으로 충청북도는 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실증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들이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9&bbsNo=65&ntNo=318166&searchCtgy=&searchCnd=S-J&searchKrw=AI&pageIndex=1>

충북과기원-중국 위해시, 과학기술 교류 맞손

- 충북 과학기술, 'K-혁신' 날개 달고 대륙 진출 본격 시동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이 중국 산둥성 위해시와의 과학기술 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충북과기원은 '2025 충청북도 & 산둥성 위해시 과학기술혁신 산업협력 초청 컨퍼런스'에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고근석 원장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2명의 충북의 과학기술사절단을 이끌고 위해시를 방문, 현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위해시 과학기술국과 위해시과학기술혁신개발센터가 주최하고, 충북과기원과 위해시과학기술서비스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가장 큰 성과는 양 기관 간의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위해시 진출 충북기업 공동 지원, 공동 R&D 센터 및 연락사무소 설립·운영, 정기적인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기술 로드쇼 및 기업 매칭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충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 AI,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위해시 현지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디얼정보기술을 포함 총 3개 기업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의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양측은 세부 논의를 거쳐 7개 협력 분야에 대한 예비 합의를 했다.

이번 방문에서 사절단은 중국의 우수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체험했다. 위해시 위즈덤밸리 산업단지를 현장 견학하며 한·중 무역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를 통해 충북기업이 위해시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사무공간, 재정지원, 법률 컨설팅, 마케팅, 인프라 등 폭넓은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도 나누었다.

고근석 원장은 "이번 교류가 한·중 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위해시를 거점으로 충북의 디지털 우수기업들이 중국의 우수기업과 협업해 성장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기원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주 오송 오스코에서 '충북 청주 디지털워크'를 개최한다. 위해시와의 과학기술 분야 후속 교류 방안도 협의의 중점이다. 나아가 이번 위해시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과 충북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5>



04

R&D 성공사례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추격형 R&D를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미래선도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였고, 경상북도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를 구축, 지역의 신성장동력 분야 국책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기업수요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 경상북도 연구개발지원단 주도 4차산업혁명 추진체계 확립

경상북도 연구개발지원단은 산·학·연·관의 핵심 주체가 총괄적으로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발굴, 국책사업 기획, 기업 수요 기반 기술개발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행 기반을 조성하였다.



- 전자·정보통신, 바이오·의료기기, 스마트제조, 항공·모빌리티, 에너지, 첨단·그린신소재 등 6대 기술분야 분과를 중심으로 매년 기술 수요조사·과제 발굴·평가관리·사업화 지원까지 전주기 구조를 완성한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총 52개 핵심기술 R&D 과제를 기획·지원하며 94개 수행기관(기업 60, 연구기관 13, 대학 21)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기반의 4차산업혁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한 기술거점을 구축하였다.

추진연도	R&D 지원		실행위원회	
	지원 과제 수	R&D 지원비	지원분과 수	지원비
2015	12	1,330	-	-
2016	2(+계속 8)	1,230	-	-
2017	2(+계속 2)	1,270	-	-
2018	2(+계속 4)	1,350	-	-
2019	2(+계속 4)	1,350	-	-
2020	2(+계속 3)	950	7	50
2021	2(+계속 2)	1,080	-	-
2022	2(+계속 3)	800	7	100
2023	2(+계속 2)	790	7	100
2024	2(+계속 3)	752	6	94
합계	52	10,902	27	344

2) 실행위원회 국책사업 성과 및 핵심 R&D 투자 성과

- 실행위원회는 경상북도 산업정책과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직접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국책사업 기획을 수행했고, 2020~2024년 동안 총 국비 387.5억 원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 2015~2024년까지 총 109억 원(도비)을 투입하여 TRL 5~7단계의 기술개발 중심 R&D를 지원하며 지역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 4차산업혁명 17개 미래선도품목 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바이오·스마트제조·소재 등)를 집중 육성하여 매출 창출 1,147억 원, 고용유발 203명, 기술이전 14건, 기술료 11억 원 등 가시적 성과 창출하였다.
 - * 대표기업 사례 : 세아메카닉스(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서포팅 시스템, 매출 8.6억·고용 36명), 에이앤폴리(바이오프린팅 기반 신약 플랫폼, 매출 12.8억·투자유치 15억), 브이스페이스(금속적층 기반 배터리 시스템, 매출 17.8억·IP 14건) 등이 성과를 실증

매출 창출 총 1,147억원 매출 창출

간접매출 417억원
직접매출 730억원

고용 창출 총 203명 고용 유발

직접고용 159명
간접고용 44명

논문 / 발표 총 62건의 논문 및 학술 발표

SCI논문 36건
BISCI논문 6건
학술발표 26건

지식재산권 총 126건의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55건
특허 등록 39건
소프트웨어 등록 6건
저작권 등록 13건
해외 지식재산권 6건
국내 원재료 등록 1건

- 지역 중소기업 58개가 직접 참여한 '기업 중심 R&D 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 사업화·투자유치 등 지역 기업 성장 가속화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업 구조 활성화로 지역 기술혁신 생태계의 구조적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3) 10주년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 기반 마련

- 2024년 사업 1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 연구개발지원단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경과, 대표기업 사례, 시연 전시 등을 진행하고 지역 내·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총 21개 전시부스와 기업 대표·기관장·실행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기업 연구성과 홍보 및 산학연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우수기업 시상(세아메카닉스·에이앤폴리·브이스페이스), 주요 성과 발표, 제품 시연 등을 통해 성과 확산 및 지속적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 성과보고회는 지역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후속 판로·투자·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기반 확보로 이어짐

4) 총평

- 경상북도는 10년간의 체계적 R&D 투자와 실행위원회 기반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도의 4차산업혁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국책사업 기획을 선도하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한 지역혁신 모델을 정립하였다.
- 이를 통해 매출·기술이전·고용·IP·논문 등 다차원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2025년 성과보고회를 기점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평가된다.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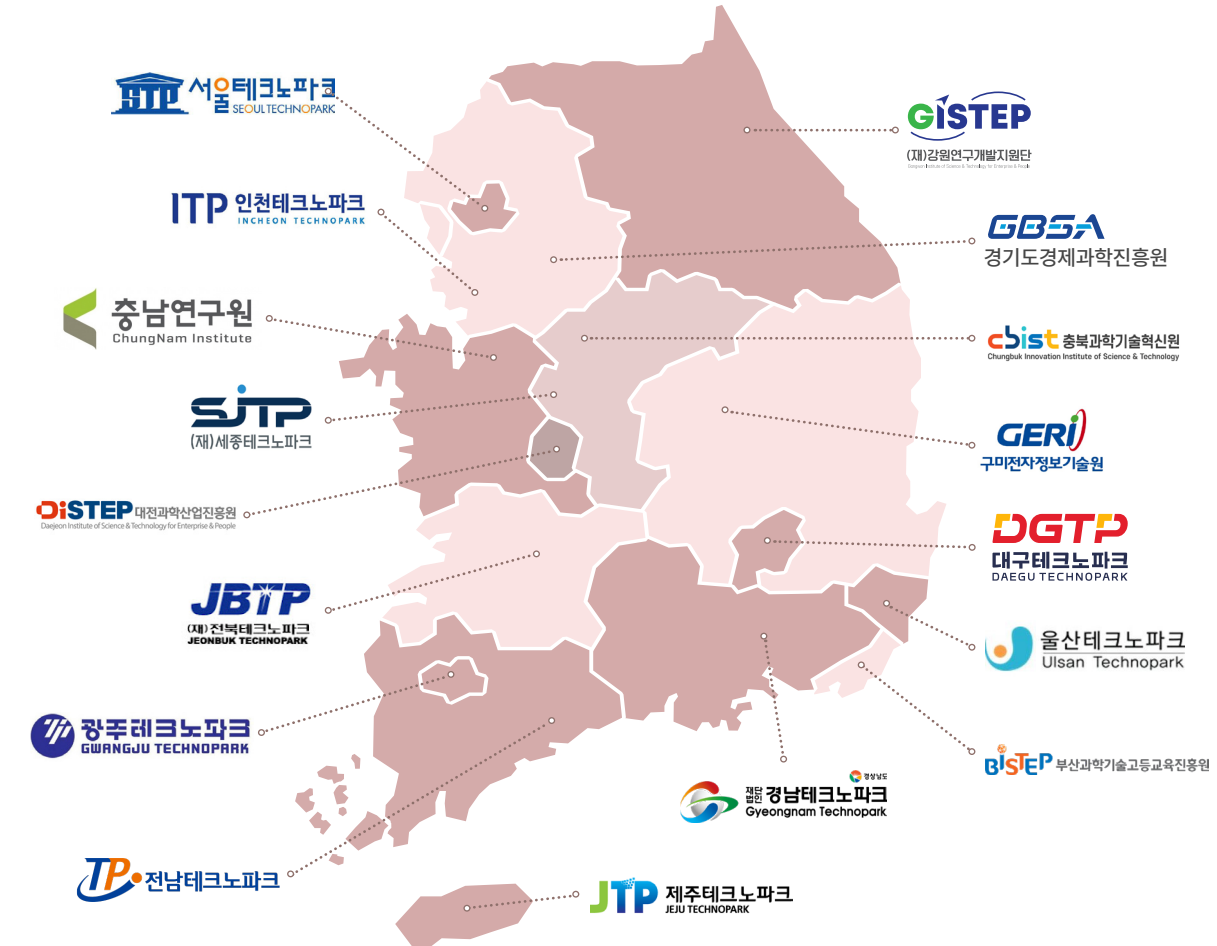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gistep.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연구개발조사·분석정보제공시스템	gctis.gntp.or.kr
경북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	gbtis.re.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stis.or.kr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재)강원연구개발지원단	(033) 641-5033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 850-2124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 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 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 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 260-0741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 479-2217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 729-2744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 609-0411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 260-9322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 757-418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 720-2308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 865-0531	충남	충남연구원	(041) 840-1775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051) 795-5035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 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 944-6072			

